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로마서 24주차 (롬 8:19~8:30)

(2016년 2월 11일 - 2018년 2월 17일)

(제5권 24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24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8 년 2 월 11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난다는 것 (주일)

오늘의 본문 (롬 8:19~21)

- ¹⁹ ἡ γὰρ ἀποκαταδοκία τῆς κτίσεως τὴν ἀποκόλωσιν τῶν υἰῶν τοῦ θεοῦ ἀπεκδέχεται.
(왜냐하면 피조물들이 소망하는 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
- ²⁰ τῇ γὰρ ματαιότητι ἡ κτίσις ὑπετάγη, (왜냐하면 피조물이 쓸모없는 것에 굴복하고 있다)
οὐχ ἔκούσα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ἀλλὰ διὰ τὸν ὑποτάξαντα, (굴복케 하시는 이의 [의지] 때문이다)
ἐρ' ἐλπίδι (소망에 근거하여)
- ²¹ ὅτι καὶ αὐτὴ ἡ κτίσις ἐλευθερωθήσεται ἀπὸ τῆς δουλείας τῆς φθορᾶς
(왜냐하면 피조물이 썩어짐에 굴종하던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εἰς τὴν ἐλευθερίαν τῆς δόξης τῶν τέκνων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로마서는 기독교 구원에 대한 변증서다. 바울은 특유의 논리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로마서 8 장 19 절에 이르면 갑자기 논리가 비약되는 느낌이 든다.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영광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범위가 전체 피조물로 확대되는 듯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바울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한다. 로마서는 서신서다. 논리적인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문맥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꺼낼 리는 만무하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들들의 드러남과 앞서 18 절에서 언급한 성도의 고난은 서로 연결되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그 자체로 고난이다. 성도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 이 아니다. 자신이 세례 교인이고, 직분이 뭐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해왔는지를 말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는가? 하지만 하나님 아들들이 드러난다는 것은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성도는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성령님은 성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그 중에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실질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신다. 성도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의미하지 않는다.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은 자식이 자신의 십자가라고 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현실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한시라도 빨리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만약 이런 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한 말씀에 얼마나 모순된 태도인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는 이런 종류의 어려움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진리를 드러내고 그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

세상에는 참된 것이 없다. ‘1 더하기 1 은 2 다리는 명제가 수학적으로 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거짓말만 한다는 것도 아니다. 진실을 진실이 아니라고 우기거나 거짓 포장을 일삼는다는 뜻도 아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것이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전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가 진리라고 믿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살아가는데 돈이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맘몬을 숭배하고 있다. 이런 사람

들은 삶에서 돈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 한다.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도 돈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다. 교회 기도 모임에서조차 돈과 건강 그리고 자녀들의 진학 문제를 빼면 기도할 게 별로 없다고 할 정도다. 이 말대로라면 교회 역시도 이미 맘몬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지어 놓은 화려한 성전들, 그 안에 설치된 각종 음향, 조명 기구들... 교회 안에서조차 부의 쏠림 현상을 당연시하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현금으로 일종의 박탈감을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러면 서도 자신들을 하나님 아들들의 공동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단언컨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돈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돈으로 성도들을 괴롭게 하거나 돈을 사람보다 우선시 하지도 않는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스스로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오늘날처럼 물질적 번영을 우선시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도리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형국이고 그런 모습들에 실망한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가는 일종의 역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소위 가나안 성도라 불리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정체성을 오롯이 피조 세계에 드러내는 것이 가능할까?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엄청난 고난이 뒤따른다. 예수님은 십자가 수난을 당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¹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¹⁹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 15:18-19).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드러내면 세상은 절대로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베풀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면 세상이 환영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세상은 적당히 가난한 자를 돕고 자선을 베푸는 것으로 자신에게도 사랑이 있음을 자랑한다. 정치인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와 무관하게 선거 때만 되면 노숙자 센터나 고아원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어댄다. 그리고는 자신의 선한 행위를 각종 방송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다닌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면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일 것 같은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잇속을 챙기고 자기 이름 내기에 급급한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그들의 불의함을 꾸짖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지는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믿는 자들은 불의에 맞서 싸워 고난을 받기보다는 카멜레온처럼 그들 속에 뒤섞여 그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원하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숨겨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히 원한다.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진리를 드러내고 가르쳐 주기를! 당신은 정말 성도인가? 그렇다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에서 실제로 살아내야 한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이 굴복당하는 이유 (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 8:19~21)

- ¹⁹ ἡ γὰρ ἀποκαταδοκία τῆς κτίσεως τὴν ἀποκάλυψιν τῶν υἱῶν τοῦ θεοῦ ἀπεκδέχεται.
(왜냐하면 피조물들이 소망하는 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
- ²⁰ τῆ γὰρ ματαιότητι ἡ κτίσις ὑπετέγη, (왜냐하면 피조물이 쓸모없는 것에 굴복하고 있다)
οὐχ ἔκουσα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ἀλλὰ διὰ τὸν ὑποτάξαντα, (굴복케 하시는 이의 [의지] 때문이다)
ἐρ' ἐλπίδι (소망에 근거하여)
- ²¹ ὅτι καὶ αὐτὴ ἡ κτίσις ἐλευθερωθήσεται ἀπὸ τῆς δουλείας τῆς φθορᾶς
(왜냐하면 피조물이 썩어짐에 굴종하던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εἰς τὴν ἐλευθερίαν τῆς δόξης τῶν τέκνων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남을 간절히 고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쓸모없는 것들에 굴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조물들의 바람은 무엇일까? 성경 신학자 제임스 던(James D.G. Dunn)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피조물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피조 세계의 회복을 갈망한다고 말한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로 인해 땅은 인간들과 대적 관계를 이루었다. 그 결과 땅은 엉성퀴를 내고 그 때문에 사람들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질서를 왜곡시켰다. 땅의 저주는 그 자체로 모든 것들의 왜곡을 가져왔다. 피조물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모든 게 쓸모없는 일이 된다. 개역개정 성경은 20 절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음이라’라고 번역하고 있다. 허무(虛無)는 노자의 무위 사상에서 유래한 단어로 형상이 없어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우주의 본질을 말한다. 불교에서도 그것과 비슷한 사상인 제행무상이라는 게 있다. 이 우주 만물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잠시도 한 모양으로 머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역시도 덧없는 것임을 강조한다. 허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헤베르’다. 형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벨’이 바로 그 단어에서 온 이름이다. 하나님을 떠난-정확하게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모든 피조물의 상태가 한 마디로 ‘없음’이다. 결국 모든 피조물들은 열매없는 일에 복종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인간들의 삶을 ‘열매없는 어두움의 일’(unfruitful works of darkness)이라 말하고 있다. 어두움은 진리를 떠난 모든 사람들이 속한 곳이다. 다른 피조물들도 예외는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일들이 허무요 열매 없음이다.

그렇다면 이 피조물들이 빛의 세계에서 어두움의 세계로 옮겨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피조물들은 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없음에 복종하고 있을까? 성경은 놀랍게도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그들 때문에,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다. 아담의 타락은 단지 인간의 죄만 불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모든 피조 세계를 분리시켰다. 그렇기에 구원은 단지 인간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피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여 새롭게 재창조 해내는 것이 구원이다. 요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승리한 후 회복된 세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²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 두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계 22:1-2).

이제 바울은 한 인간의 구원을 넘어 피조 세계 전체의 새로운 창조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나 복음을 통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지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다. 현대 기독교가 개인 구원에만 치중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온 세상 피조물들에 역사하고 계신다.

피조물에게도 소망이 있다. 그들도 썩어짐에 굴종하던 것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 자신만 돌아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우리를 가라고 명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돈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힘으로 전해지는 것도 아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복 받고 잘 살아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교회로 오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원불교 교인이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원불교를 믿어야 하는 게 아니겠는가?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고 그가 사흘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전하면 된다. 그 사실만 제대로 전한다면 썩어짐에 굴종하고 있는 피조물들이 자유롭게 되어 더 이상 세상의 죄악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구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한다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자녀들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현금도 많이 하고 남들도 도와주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누리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100세까지 무병장수 하며 건강한 몸으로 행복하게 사는 걸까? 성경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고 한다.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전할 뿐 아니라 진리에 의거한 삶을 살아가게 마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반드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게 되어 있다. 사랑이 어떻게 욕망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은혜가 어떻게 율법적 요구와 함께 할 수 있는가?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진리 안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애써 외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복음을 위한 군사나 마찬가지다. 군사는 사적인 일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군사로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종국에는 피조물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더욱 전진해야 한다.

묵상을 위한 질문

피조 세계는 왜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을까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들과 어떤 상관이 있나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가? (화요일)

오늘의 본문 (롬 8:22~25)

- ²² οἶδαμεν γὰρ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다)
ὅτι πᾶσα ἡ κτίσις στενεύει καὶ συνοδίνει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을)
ἄχρι τοῦ νῦν· (지금까지)
- ²³ οὐ μόνον δέ, (그들 뿐만 아니라)
ἀλλὰ καὶ αὐτοὶ (우리들도)
τὴν ἀπαρχὴν τοῦ πνεύματος ἔχοντες,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니고 있는)
μεῖς καὶ αὐτοὶ ἐν ἑαυτοῖς στενεύομεν (우리 스스로도 내면적으로 탄식하고 있다)
υἰοθεσίαν ἀπεκδεχόμενοι, (양자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τὴν ἀπολύτρωσιν τοῦ σώματος ἡμῶν. ([곧] 우리 몸의 구속을)
- ²⁴ τῇ γὰρ ἐλπίδι ἐσώθημεν·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되었다)
ἐλπίς δὲ βλεπομένη οὐκ ἔστιν ἐλπίς· (그러나 보여지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ὁ γὰρ βλέπει τίς ἐλπίζει; (왜냐하면 보이는 그것을 왜 바라겠는가?)
- ²⁵ εἰ δὲ ὁ οὐ βλέπομεν ἐλπίζομεν, (만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δι' ὑπομονῆς ἀπεκδεχόμεθα. (우리는 인내를 통하여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앞서 우리는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음을 보았다. 피조물들뿐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함께 탄식하고 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모든 인간들은 크든 작든 고통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 게다가 그런 고통은 결코 사라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치고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덮쳐 오듯 모든 사람들은 고통의 바다에 내던져져 외로이 고통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신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은 행복하다고 말한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대개는 자신이 원하는 삶의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 잠시 행복하다 여길 뿐이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행복하고, 원하는 상대와 결혼해서 행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잃었던 건강을 되찾아서 행복하다고 느낀다. 이처럼 인간이 느끼는 행복의 근거들은 전부가 외적인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들은 뭔가 외적으로 결핍이 있으면 그것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한다. 자기가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갑자기 불안이 엄습해 온다. 인간들은 이런 불안감을 없애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대부분은 삶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점에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려 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포장하려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교묘하게 보일 수도 있다.

바울은 일찍이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했다. 지금 일시적으로 주어진 현실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부요하고 풍족해서 매일의 삶이 잔치였으며 아무런 고통도 없이 살아가던 부자가 죽고나자 지옥에 가서 울부짖는 장면을 보면 그가 지상에서 누렸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물론 잠시는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으

나 그것은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문제는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온전히 인정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편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욕망의 숙주인 육신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육신의 제약을 받고 육신의 유혹 하에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유혹에 빠져 그릇된 길로 나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일시적으로 방황하거나 욕망을 추구했다고 해서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려는 죄성은 늘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 있다.

그렇기에 바울은 성령의 첫 열매를 갖고 있는 우리들조차 내면적으로는 탄식을 하고 있으며, 양자됨 즉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몸의 구속은 몸의 부활을 의미한다. 종말론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언젠가는 몸의 구속을 통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육신의 몸에 갇혀 있는 한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눈을 돌리고 살아도, 세상의 것을 맛보지 않겠노라 아무리 다짐을 해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온다. 못 볼 걸 봤다거나 죄악된 세상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생기는 탄식이 아니다.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우리들조차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적인 것을 바라고 추구하는 데서 오는 깊은 유감의 탄식이다. 그러니 이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바람이 얼마나 간절하겠는가? 진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본질이 보인다. 또한 그 안에서 아등바등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실체도 드러나게 돼 있다. 바울은 세상과 자신의 본질을 깊이 통찰한 사람이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²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니 ²¹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²²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²³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²⁴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빌 1:20-24).

바울은 육신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망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지니고 있었다. 아직도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애타는 연민을 갖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한다. 그러니 어찌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은 바울과 같은 탄식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에겐 사심이 없다. 오직 복음을 가진자로서 그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세상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만 있을 뿐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왜 그런 갈망이 존재할까요? 그것이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중보자 성령님 (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 8:26~27)

²⁶ Ὡσαύτως δὲ καὶ (이와 같이 역시)

τὸ πνεῦμα συναντιλαμβάνεται (성령이 도우신다)

τῇ ἀσθενείᾳ ἡμῶν (우리가 무력할 때에)

τὸ γὰρ τί προσευξόμεθα καθὼς δεῖ οὐκ οἴδαμεν,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모르기 때문에)

ἀλλ' αὐτὸ τὸ πνεῦμα ὑπερεντυγχάνει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원하신다)

στεναγμοῖς ἀλαλήτοις (설명할 수 없는 탄식으로)

²⁷ ὁ δὲ ἐραυνῶν τὰς καρδίας οἶδεν τί τὸ φρόνημα τοῦ πνεύματος,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안다)

ὅτι κατὰ θεὸν ἐντυγχάνει ὑπὲρ ἁγίων.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탄원하신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 세상은 인간들의 욕망이 충돌하는 욕망의 결집체라 할 수 있다.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각자가 추구하는 욕망에 따라 다르다.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고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들의 욕망을 구현해 줄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다.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소위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다. 그들은 그 후보가 이 땅에 기독교적 정의를 구현해 줄 인물로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별로 그렇지 않아 보인다. 2007 년말 한국 국민들도 그랬다. 그 시대엔 자유와 정의보다는 경제와 돈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같은 사람들의 욕망이 결집되어 적임자라고 생각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필자는 지금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욕망을 결집시키더라도 그것이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마음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은 점점 욕망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들은 이미 만족을 모르는 존재가 된 지 오래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서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그 자리를 욕망이 차지하면서 어쩔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도 세상은 그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믿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한다. 그럴 때면 진리를 지닌 그리스도인들은 무력감을 느낀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자신을 의뢰해야 하지만 어떻게 기도를 해야할 지, 무엇을 아뢰야할 지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력감에 빠져 기도조차 막히고 홀로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도 결코 그들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우리가 무력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고 말하고 있다. 세상이 점점 더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의로운 외침이 외면당하고 있을 때에도 성령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바울은 말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고 탄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런 바울의 말에 선뜻 동의하기가 힘들 것이다.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은 대부분 기도를 잘 한다. 실제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하고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지 모른다고 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다고 한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지 가르쳐 주신 적이 있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이 그것이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 누가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장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이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기도라 할 수 없다.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도 다 하고 있는 것들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쓸데없는 기도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각자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내 수궁할 것이다.

하지만 걱정은 덜어도 될 것 같다. 바울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선언한다. 성령님의 간구는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설명할 수 없는 탄식, 인간들이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편에서 간구하신다. 그분이 간구하는 핵심 내용은 바로 몸의 구속이다.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동참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인내하며 감당해 내도록 간구하신다.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고별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갑자기 혀가 꼬이며 이상한 방언을 하고, 각 사람들의 미래가 보이고, 불치병이 깨끗이 낫는 등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알아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는 일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로 일탈을 해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이 험난해도 성령님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는 않은가?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조차 외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은가?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힘들어하고 탄식할 그때 우리보다 훨씬 더 마음 아파하며 탄식하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둠에 있는 것 같지만 맑은 광명을 거닐고 있는 것이고, 풍랑이 휘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버려진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직접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하는 기도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당신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 8:28~30)

- 28 Οἴδαμεν δὲ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ὅτι τοῖς ἀγαπῶσιν τὸν θεὸν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πάντα συνεργεῖ εἰς ἀγαθόν,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한다)
 τοῖς κατὰ πρόθεσιν κλητοῖς οὖσιν.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 29 ὅτι οὐς προέγνω,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καὶ προώρισεν συμμόρφους τῆς εἰκόνης τοῦ υἱοῦ αὐτοῦ, (그의 아들의 이미지를 본받도록 미리 택하셨으니)
 εἰς τὸ εἶναι αὐτὸν πρωτότοκον ἐν πολλοῖς ἀδελφοῖς· (그 결과 그를 모든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었다)
- 30 οὐς δὲ προώρισεν, (그가 미리 택하신 그들을)
 τύτους καὶ ἐκάλωσεν· (그가 또한 부르셨다)
 καὶ οὐς ἐκάλωσεν, (그가 부르신 그들을)
 τούτους καὶ ἐδικαίωσεν· (그가 또한 의롭게 하셨다)
 οὐς δὲ ἐδικαίωσεν, (그가 의롭게 한 그들을)
 τούτους καὶ ἐδόξασεν. (그가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로마서 8 장 28 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흔히 회자되는 말씀 중 하나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관련한 수많은 예화들도 있다. 중국의 고사인 새옹지마로 설명하거나 탈무드의 예화를 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전화위복을 말하는 분들도 있다. 어떤 설교든 이 구절을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으로 귀결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한다. 삶의 과정 중에 힘든 일이 있고 그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좋은 쪽으로 결말이 날 때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장 많이 인용한다.

하지만 올바른 적용은 올바른 성경 해석을 전제로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만큼 잘못 해석되고 적용되는 말씀도 드물기 때문이다. 일단 개역개정 성경은 이 구절을 모호하게 해석했다. 바울이 쓴 ‘그리고’(δε)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해석함으로써 이 말씀이 마치 로마서라는 편지 전체에서 하나의 독립된 명제처럼 보이게 했다. 사실 데(δε)라는 접속사는 해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원문에서 이 접속사가 쓰인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바울이 쓴 서신서는 그 논리가 매우 치밀하고 촘촘하기로 유명하다. 그는 단어 하나 하나까지 심사숙고해서 사용하기에 접속사 하나라도 함부로 쓰는 경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가 사용한 논리를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는 원문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 28 절은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οἴδαμεν δε)라고 시작된다. 이같은 형식은 22 절에서 보았다. 22 절은 접속사 ‘데’(δε)가 없이 그냥 οἴδαμεν(οἴδαμεν)으로 시작한다. 우리 한글 성경은 22 절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로 번역했는데 ‘아나니’가 맨 마지막에 옴으로써 바울이 애초에 의도한 것과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해 버렸다. 바울은 οἴδαμεν(οἴδαμεν)을 일종의 라임(thyme)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증하고 있다. 이같은 문학적 표현을 찾아내면 22 절과 28 절은 하나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바울이 왜 ‘우리는 알고 있다’ (오이다멘(Οἶδομεν))라는 구절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바울이 쓴 18 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왜냐하면 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드러날 영광과 비견될 수 없다고 여긴다”

18절은 ‘나는 여긴다’ (로기조마이 (Λογίζομαι))로 시작된다. 우리가 환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은 앞으로 드러날 영광에 비견할 수가 없다고 말이다. 바울이 한 이 말은 주장이고 선언이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고 선언한 걸까? 그 해답을 22절과 28절에서 찾을 수 있다. 두 절 모두 ‘우리는 알고 있다’로 시작한다. 결국 ‘나는 여긴다’라는 18절 말씀의 하위절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분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궁극적인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29~30절이 28절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다. 29절에 ‘우리가 알고 있다’ (오이다멘(Οἶδομεν))는 구절은 두 개의 호티(ὅτι)절에 연결된다 (호티절은 영문법의 목적절로 이해하면 된다). 29절에도 호티(ὅτι)가 나오고 29절도 호티(ὅτι)로 시작된다. 바울은 결국 28절부터 30절을 하나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확인시켜 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 몸이 구속을 입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보호해 주신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는 누구일까? 28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바울은 ‘아가파오’(ἀγαπάω)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아가파적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가파오를 너무 도식적으로 이해한 탓이다. 바울은 모름지기 성도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에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존재인 것이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는 동의어다. 앞서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육신의 욕망을 죄로 규정하고 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원한다. 그러나 그 모든 걸 이루었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입은 자리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솔직히 말해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세계관을 따르고 육신의 욕망을 더 중시하는 자라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힘을 합쳐 선으로 이끄신다는 말은 이런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인가?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목적과 당신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이 같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 8:28~30)

- 28 Οἴδαμεν δὲ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ὅτι τοῖς ἀγαπῶσιν τὸν θεὸν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πάντα συνεργεῖ εἰς ἀγαθόν,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한다)
τοῖς κατὰ πρόθεσιν κλητοῖς οὖσιν.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 29 ὅτι οὐς προέγνω,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καὶ προώρισεν συμμόρφους τῆς εἰκόνης τοῦ υἱοῦ αὐτοῦ, (그의 아들의 이미지를 본받도록 미리 택하셨으니)
εἰς τὸ εἶναι αὐτὸν πρωτότοκον ἐν πολλοῖς ἀδελφοῖς· (그 결과 그를 모든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었다)
- 30 οὐς δὲ προώρισεν, (그가 미리 택하신 그들을)
τύτους καὶ ἐκάλωσεν· (그가 또한 부르셨다)
καὶ οὐς ἐκάλωσεν, (그가 부르신 그들을)
τούτους καὶ ἐδικαίωσεν· (그가 또한 의롭게 하셨다)
οὐς δὲ ἐδικαίωσεν, (그가 의롭게 한 그들을)
τούτους καὶ ἐδόξασεν. (그가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한다.” 28 절에서 호티(ὅτι)가 이끄는 목적절 안에서 주어진 ‘모든 것’(πάντα) 인데 그 의미가 매우 광범위하다. 인간일 수도 있고 다른 피조물들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지만 다른 피조물들은 그럴 수 없다. 그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도 없고 능동적인 행위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인간을 포함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 내는 상황의 배후에는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가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성도를 위한 선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 만물들을 통제하고 운행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너무 뻔한 답이지만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서 그것들을 선으로 이끄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궁극적으로 성도에게 선을 가져 오신다.

이런 사실에 미리부터 들떠서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이루어 주실 거라고 착각하면 오산이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다. 고난이 과도치듯 끊임없이 밀려 오더라도 그것이 선일 수 있다. 로마서를 쓴 바울의 삶이 그랬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우리의 바람대로라면 하나님은 바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복음을 위해 결혼도 마다하고 앓으나 서나 늘 복음만 생각한 그에게 물질적 보상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건강을 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많은 이들에게 추앙받고 사랑받게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로마서 8장 28절을 읽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새옹지마도 있고, 전화위복도 있는데 정작 이 글을 기록한 바울에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려면 선 사람이다. 누기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인도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6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 무시아 앞에 이르

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⁸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⁹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¹⁰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행 16:6-10).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런데 성령이 그 길을 막았다. 그래서 바울은 방향을 틀어 지금의 터키 북부 지방인 무시아와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바울은 할 수 없이 에게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드로아까지 밀려 내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빌립보라는 낯선 땅으로 가게 된다. 빌립보에 간 건 전혀 바울의 의지가 아니었다. 바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를 이끌어가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전적으로 보호하셔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빌립보에서 바울은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만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런 일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빌립보에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바울을 빌립보까지 인도하셨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해야 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으니 말이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감옥에 갇혀서도 태연하게 찬양을 불렀다. 하나님이 빌립보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바울이기에 그럴 수 있었다. 그들이 찬양을 하는 도중에 느닷없이 지진이 났고 감옥이 무너지며 감옥문이 열렸다. 그 소식을 들은 간수가 달려와서 활짝 열린 감옥문을 보고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탈옥하지 않았으니 안심하라는 바울의 말에 간수는 가슴을 쓸어 내렸다.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 감동한 간수는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 보았다. 감옥에 갇힌 것은 바울 일행인데 그를 기둔 간수가 도리어 그들에게 목숨을 구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바울은 그런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날에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 이리 하여 마침내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바울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었는가? 하나님은 굳이 바울을 감옥에 넣지 않고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마음 속에 갖가지 의문에 떠오르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일일이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뿐이다. 훗날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다.

“¹¹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¹²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 4:11-12).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상황에 함몰되지 않는다.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법을 배운다. 만약 오늘날 성도라 불리는 우리들이 바울과 같은 신앙을 지니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엄청 바뀌지 않을까? 아마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선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성도다. 성도는 하나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신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선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처한 현재 상황을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상황이 복음을 확신하게 만든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 8:28~30)

- 28 Οἴδαμεν δὲ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ὅτι τοῖς ἀγαπῶσιν τὸν θεὸν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πάντα συνεργεῖ εἰς ἀγαθόν,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한다)
τοῖς κατὰ πρόθεσιν κλητοῖς οὖσιν.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 29 ὅτι οὐς προέγνω,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καὶ προώρισεν συμμόρφους τῆς εἰκόνης τοῦ υἱοῦ αὐτοῦ, (그의 아들의 이미지를 본받도록 미리 택하셨으니)
εἰς τὸ εἶναι αὐτὸν πρωτότοκον ἐν πολλοῖς ἀδελφοῖς· (그 결과 그를 모든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었다)
- 30 οὐς δὲ προώρισεν, (그가 미리 택하신 그들을)
τύτους καὶ ἐκύλῃσεν· (그가 또한 부르셨다)
καὶ οὐς ἐκύλῃσεν, (그가 부르신 그들을)
τούτους καὶ ἐδικαίωσεν· (그가 또한 의롭게 하셨다)
οὐς δὲ ἐδικαίωσεν, (그가 의롭게 한 그들을)
τούτους καὶ ἐδόξασεν. (그가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즉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한다’는 명제를 바울이 던진 이유가 모든 성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에 필자도 동의한다. 하지만 무조건적 동의는 아니다.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세상적인 복을 가져다 주고 인간의 모든 욕망을 충족해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라.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논증해 온 바울이 갑자기 세상의 복, 세상에서의 번영을 이야기 한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의 선을 이룬다고 한 말은 어떤 의미일까?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옳은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다. 그 당시 이 편지를 읽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반신반의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물들어 가고 있었다.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결국 복음을 좀더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바울의 주장으로 우리가 더욱 분명히 알게 된 것은 하나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모든 상황을 동원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면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 구원에 관한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식에 시달리며 그 죄를 씻고 가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행여나 실수라도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여전히 자신만의 선악 기준으로 자책을 하기도 하고, 남들을 비판하기도 하며, 때론 스스로 교만

해지기도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지만 그건 단지 지식에 지나지 않을 뿐 아직도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설명한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말로 보아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듯 세상 일이 술술 풀려나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사실은 뒤 이어 바울이 논증하는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오이다멘 (Οἶδομεν)라는 문장은 두 개의 호티(ὅτι)에 연결되는데, 첫 번째가 28절이고 두 번째가 29절이다. 29절과 30절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절치를 거쳐 구원하셨으며, 우리의 구원이 어느 단계에까지 이르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28절은 우리를 구원하여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설명하는 구절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리는 주위에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어떤 이는 남부러울 것 없을 정도로 평탄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찾아 온 불행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고 말한다. 만약 그의 삶이 계속해서 평탄했다면 아마도 그는 교회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리스도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어떤 이는 건강을 잃고 난 후 예수님을 만나기도 한다. 모두가 고통스런 상황을 맞은 그 당시에는 힘들고 두렵지만 이 모두가 종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물론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모두가 병이 낫거나 재정이 좋아지고 상황이 반전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현재를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그것이 복음이 주는 신비한 능력이다.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매우 힘든 단어가 있다. 28절에서 선으로 번역된 ‘아가돈’ (ἀγαθόν) 앞에 있는 전치사 ‘에이스’ (εἰς)가 바로 그 단어다. 이 단어는 ‘~안으로’(into)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말인데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한다는 뜻보다는 모든 것이 함께 일을 해서 선으로 이끈다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성도를 선으로 이끄신다. 여기서 선은 복음이다. 추상적으로만 알고, 추상적으로 깨달았던 그 복음이 상황을 통해 구체화되고 상황을 통해 체험된다.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했다 (롬1:16참조). 많은 분들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믿음은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체험적 확신이다. 믿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 생겨나지만 반드시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굳어지게 되어 있다. 그 믿음이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씻기 위해 율법의 종이 되어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어 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것이 선이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견뎌 나가게 하는 힘이 된다. 세상살이가 편한 사람들은 복음이 뭐 그리 대수냐고 반문하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겐 이 세상이 고통의 바다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복음은 우리의 것이 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당신이 겪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사실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나요?